

1004대교 인근 ‘예술랜드’ 조성된다

신안군 376억 원 관광단지 조성 MOU 체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하여 관광메카로 육성

지난해 4월 4일 개통 이후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된 전남 신안군 1004대교, 1004대교 인근 암태도 신석리 일원에 새로운 관광콘텐츠인 ‘1004 예술랜드’가 조성된다.

천사대교 개통 이후 암태도를 방문한 차량은 2019년 말 기준으로 무려 233만 대에 달한다. 특히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약 8천 대의 자동차가 방문하는 암태도는,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새로운 관광중심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빌들처럼 몰려드는 관광객들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유원지 시설 등이 크게 부족해 여행객들의 아쉬움을 키워왔다.

이와 관련 신안군이 암태도 신석리 일원에 테마형 복합 관광단

지인 ‘1004 예술랜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2019년 12월 27일 (주)여수예술랜드와 총 376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MOU)을 체결했다.

‘1004 예술랜드’에는 여행객들에게 보다 많은 볼거리를 선물할 대관립차와 모노레일이 운행될 예정이다. 카페테리아와 특산물판매장 등 여행 편의시설도 함께 갖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낙오도에는 그동안 가장 아쉬운 점으로 거론돼 왔던 숙박문제를 해결해줄 약 200실 규모의 숙박 시설과 함께 인피니티풀, 인공해수욕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안군은 그동안 ‘스쳐 지나는 여행지’ 였던 신안이, ‘머물며 쉬어가는 여행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1004 예술랜드’ 조성 사업이 천사대교와 함께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통해 지속가능한 새로운 섬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안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자협약 파트너에게 행정적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면 개발대상지의 기초인프라 구축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기초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1004예술랜드’의 초기 준공을 유

도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004 예술랜드’는 뛰어난 자연경관은 물론 천사대교와 어울리는 서남권 관광의 새로운 랜드 마크가 될 것”이라면서 “관광객들에게 특색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상호 공동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확신 한다”고 말했다.



장흥군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장흥군가족센터는 최근 3층 자원봉사실에서 ‘2020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대상 가정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어 전문자격을 취득한 방문교육지도사와 교육 참가자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오리엔테이션은 2020년도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교육과 자녀양육 지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방문교육사업은 생활언어를 익

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별 한국어교육과 언어·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임신~만12세자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부모교육을 지원하며, 만3세에서 만10세 이하의 다문화가족 자녀에게는 독서코칭, 토론지도, 문화역량 강화 등 자아, 정서, 사회성 강화 교육이 제공되어 다문화 아동들이 밝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장흥=위지훈 기자

무안군, 개발부담금 토지 임시특례 종료

2020년부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기준 환원

무안군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소규모 토지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면적 기준에 관한 임시특례가 2019년 12월 31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가 부과하는 부담금의 일종으로 개발차익의 20% 또는 25%를 국가에 납입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 기준이 도시지역은 990㎡(약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농림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약 500평) 이상의 개발 사업에 대해 원래 기준대

로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이 된다.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산정할 때 민간 소규모 개발사업 면적 2,700 ㎡(약 850평) 이하 사업에 대해 개발비용 산정을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무안군의 경우 표준비용이 약 5.4% 상향되어 산지는 ㎡당 42,210원, 산지 외는 ㎡당 31,310 원이 표준비용으로 적용받게 된다. 다만 남부의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비용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면적을 확인하고 사업 종료 후 40일 이내에 반드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등을 무안군청 민원지적과에 제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바뀐 규정을 잘 살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중의 장 ‘정월 장’, 강진 전통장류 인기

대한민국 식품명인이 만든 된장, 간장, 고추장

진호 대표는 수십 년 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위생적인 생산 유통을 위해 현대식 공정을 도입하여 전통장류를 생산하고 있다.

강진군 군동면 용소리에 위치한 신기마을은 30년 넘게 전통방식으로장을 만들고 있다. 양질의 토양과 깨끗한 물로 생산된 강진의 콩을 전량 수매해 찬비빔이 부는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매주를 쑤어 자연 건조시키고, 정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장을 담근다.

매주를 하나하나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전통장 담그기는 5년 이상 숙성된 천일염을 넣어 간수를 만들고 달걀이 둥둥 떠 정도로 농도를 맞춰 매주를 50일간 숙성시킨다. 이때 1000도 이상에서 구워 낸 전통용기를 장독으로 사용해 외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통기성과 방부성을 높여 더욱 깊고 구수한 전통 장맛을 완성한다.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 최

진호 대표는 수십 년 간 이어져 내려온 전통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위생적인 생산 유통을 위해 현대식 공정을 도입하여 전통장류를 생산하고 있다. 깊은 맛과 품미를 지닌 전통장류를 깨끗하게 대량으로 생산함으로써 강진의 장맛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

강진 전통장류는 마을의 주요 소득원을 넘어 강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장 선물세트 주문이 쇄도하는 한편, 강진 전통장 비법을 배우기 위해 전국각지에서 문의가 줄을이고 있다.

현재 강진군에서는 전통장류를 ‘강진 건강 10대 농식품’의 하나로 선정하고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등 집중육성하고 있다.

전통장류 구입문의는 강진전통된장영농조합법인(061-434-1616)로 하면 된다.

함평군,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특별단속



군은 이번 연휴 기간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만연할 것으로 보고 농공단지 등 주요 산단과 공장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지도·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 대상에 축사를 포함한 주요 민원발생사업장 등도 포함시키면서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민원도 사전에 차단한다는 생각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옳은 정보를 구분하는 현명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시작합니다.

